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레위 19,1-2.17-18

[화답송]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가)

(후렴) 주님은 자비롭고 너 - 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1코린 3,16-23

[복음환호송]..... 1요한 2,5 참조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음] 마태 5,38-48

[성가안내] 청년성가집

- 입당성가 [133] '사랑' 이 한 마디만을
- 봉헌성가 [57] 나를 받으옵소서
- 성체성가 [297] 주만 바라볼지라
- 파견성가 [144] 사랑하라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미사 김영복 아네스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이영우, 이태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명희, 익명 김지영 유스티나 이상홍 스테파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미사 진오도 가정 이경자 벨라데타 강복임, 강무강 강옥련, 정영도 김진희 아델라, 박지현 헤레나 박지현 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명 박기목 알버트 강호영 안드레아 강호영 안드레아 청년전례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2월 23일	정동주 유스토	김진섭 야고보	원혜경 아네스	김진희 아델라	안수관 토마스	이하나 방상욱	신혜정 이아림	신윤길 신애송 신정목 이지훈 이규완 김승애 이은경 김종선
3월 1일	홍민철 안젤로	이기수 스테파노	김혜미 레오나	임유진 라자로	최병은 루치아	안성정 배옥희	한창희 황예슬	이규완 이은경 이정현 김지영 백이백 이서원 박정자 김영희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신앙, 익숙한 것과의 결별”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혼란과 불편함을 일으킨다. 더구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는 많은 경우 '좋은 방법' 보다 '익숙한 방법'으로 반응하려 한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거나 속옷을 가지러 드는 경우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당시,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방법을 찾던 이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 대고, 속옷을 가지러는 자에게 겹옷까지 내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이 답변은 어떠한가? 오늘도 우리는 가정 그리고 일터와 성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한다. 이 안에서 하느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익숙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충돌을 체험한다. 어색한 하느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반드시 하느님의 방식에 저항하는 나를 만나게 되며 그 안에서 고통스러움을 체험하게 된다. 겹세 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근심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나 낙담하지 마라. 이 싸움과 갈등의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싸움과 갈등 없는 평화와 신앙의 성숙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를 향해 칼을 칼집에 넣으라 하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방식이 내 안에서 통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안에서 반드시 내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 수고로움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영광스러운 표지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er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꾸리아** : 11시, 아래성당
- **사목회** : 11시15분, 2층 컨퍼런스 룸
-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3월 친교실 봉사 : 학부모회

성체 조배 : 3.1. 08:30, 아래성당

[다가오는 행사]

재의 수요일

2월 26일 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재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성당에서 미사참례바랍니다. 아울러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2020 FYNV 청년피정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과거 예수님의 실제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며 회복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길 원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뉴튼 수도원
- 일정 : 2.29(토)8am출발-3.1(일)오후 도착
- 참가비 : \$135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2020 FYNV 청년세미나

유학생 혹은 비자로 취업중인 청년분들을 위해, 이민법/세무보고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현직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회계사를 직접 모시고, 질의 응답 및 개별 상담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청년이 아니더라도 위의 문제로 고민 중인 모든 신자 여러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일시 : 3.7(토) 4:30-7:30pm
- 장소 : 다미아노 홀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로 수강자

이상, 순종, 사랑을 모토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동행을 위한 꾸르실로 3박4일의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4.23(목)-26(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 대상 :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로 본당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분
- 문의 : 본당 울뜨레야간사 민완준 필립보 929.444.1411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 일시 : 2020년 5.11(월)-5.25(월)
14박 15일(기내 1박 포함)
- 출발 : Washington Dulles 공항
- 경비 : \$3,900 예상
- 지도사제 : 윤 요아킴
- 문의 : 한기남 데레사 ☎ 703.674.6081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150 이희철 신윤길 조남록 문예하 신정목 박종섭 박정자 이사라 이정진 이규완 강혜숙
감사헌금	\$ 320 익명 강혜숙 김수경
합 계	\$ 2,470

❖ 꽃봉헌 : \$ 0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을 순례 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직접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예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3/1	울뜨레야
3/8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3/15	양업회
3/22	청년회
3/29	성령기도회

성경 공부

수요일 2.26	2:30-3:45Pm 7:15-8:30Pm	클레어 룸
주일 2.23	1:30-2:50Pm	코리안 컨퍼런스룸

2020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통독을 위한 입문서 예약판매

지난 한 해 동안 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성경맛보기"를 모아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도서성물부에 신청하세요.

[성경구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이사 41,10)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정서가 없었다면 어떤 모습의 세상이 펼쳐졌을까 생각해본다. 나의 세상은 또 어땠을까?

공식적인 집계만도 여럿 건인 그 두려움에 얽힌 추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그저 두려움의 동기가 참 단순했었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두려움이 많던 소녀는 시간이 흘러 꿈에도 소원이던 수녀원에 들어간다. 어려서부터 갈망하던 곳이라 누구보다 수녀원에 최적화된 상태로 살줄 알았는데, 아뿔싸. 수녀원은 생각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었고 마음의 병이 육체로 쉽게 전이되는 스타일인지라, 1년하고 일이 개월 만에 병가를 나오고야 만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갔지만 오랜 꿈은 그리 쉽게 접혀지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3년간의 병가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의식 안에서 ‘이번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나보다. 한동안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꿈속에서 난 거센 풍랑을 마주하고 있었다. 때맞춰 수녀원에서 요구한 상담치료 기간이라, 노련한 전문가와 함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열열한 마음을 다독이고 들어간 수녀원은 과거와 양성 시스템이 달랐다. 병가전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내게 딱 맞는 그룹이 없었다. 어중 띄게 후배그룹들과 6개월의 동거 후, 혼자만 수련기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한 명의 수련자를 받아들인 전례가 없던 수녀원인지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 말, 말로 인해 새로운 두려움이 싹트게 된다. ‘더는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지난 3년이라는 병가기간 동안 몇 명의 후배들이 선배가 되었던가 말이다’.

‘이대로 6개월을 밀려나 후배그룹과 묶여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때, 원장님 앞에서 수련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원 한 후, 보름이상을 기다리던 그 때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격하던 그 날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강렬한 체험은 까맣게 타던 내 마음을, 나의 두려움을 한방에 낮게 하였다. 물론 그 시간 이후 인생이 술술 풀렸다는 건 아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져 혼자서 수련기로 올라가는 영광까지는 누렸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게 된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시간의 흐름 속에 미룩에 상륙한 나는 언어, 시각, 청각장애를 가진 복합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새가슴일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난 과감히 길을 나선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

한반도 평화기원, 밤9시 주모경 바치기를 기억하세요^^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지군자(스테파니)

[전입을 환영합니다]

조규진(아네스)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김도경 헬레스턴

[추천도서]



정태현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임을 역설하며, 비유의 저마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자세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 숨겨진 주제와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이 책을 도서성물부에서 만나보세요^^